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자 2022년 10월 19일(수) 총 3매		
담당 부서 섬발전지원과	담당자 • 섬정책팀장 송해영 ☎440-5053 • 담당자 박종윤 ☎440-4993			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강화 주문~아차도 연결하는 주문연도교, 2026년 준공 추진
 - 길이 550m, 2차선 연도교 ... 총 사업비 300억 원 투입 -
 - 아차~볼음도 연결하는 볼음연도교는 국비확보 위해 행안부와 지속 협의할 것 -

2026년에 강화군 주문도와 아차도를 연결하는 주문연도교가 놓아질 전망이다.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주문연도교 건설사업이 지난 6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, 올 연말 실시설계에 들어 간다고 밝혔다.

이 사업은 주문도와 아차도를 잇는 길이 550m, 2차선의 교량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300억 원(시비 150억 원, 군비 150억 원)이 투입된다.

그 간 2018년도 서도연도교 건설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착수했으나, 경제성 부족으로 이전까지 답보 상태였다.

그러자 지난 2021년 말 인천시는 연도교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

을 두 단계로 나눠, 1단계 주문도~아차도를 연결하는 주문연도교는 지방비(300억 원)로 충당하고, 아차도~불음도를 연결하는 불음연도교는 국비(440억 원)로 지원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.

그 결과 지난 6월 주문연도교 건설사업이 행정안전부의 ‘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’를 통과했으며, 인천시는 올해 제1회 추경에 설계용역비 등 10억 원을 편성해 강화군에 교부한 상태다. 올 연말부터 실시 설계와 2023년 착공을 거쳐, 2026년 준공이 목표다.

더불어, 2단계인 불음연도교 건설은 국비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인 협의한다는 입장이다.

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“섬의 연도교 건설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섬 발전 촉진법 등을 기반으로 추진한 사업이어서 경제적 효용만으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”며 “인천 섬에 대한 가치 재평가와 중요성을 인식하고, 섬 개발·지원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※ 해양항공국 기자 간담회 관련 사진은 행사(10시30분)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‘인천시 인터넷방송’(<http://tv.incheon.go.kr/>) ‘포토인천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

〈사진〉 사업 위치도

【 위치도 】



【 조감도 】

